뉴스레터 39호

진실의 힘
TRUTHFOUNDATION

[인터뷰]
"종이를 한 장 꺼내놓더니 꺼먼지, 흰지 물어. 희다고 하니 주먹이 날라 오더라"
| 1980년 사북항쟁 피해자 김해용

| 진실의 힘은 지난 8월부터 3.3기념사업회(사북민주항쟁동지회)와 함께 사북항쟁 고문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80년 4월 사북 광부들이 임금 인상, 노동환경 개선을 외치며 무장 난동을 벌인 '사태'로 기록됐던 이 사건은 광부들의 검은 얼굴처럼 우리 사회와 역사, 지역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들을 '국가폭력 피해자'의 자리로 불러오는 데에는 20여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진실의 힘은 당시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합동수사본부가 자행한 공개적, 전방위적, 무차별적 국가폭력에 주목합니다.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 명의 광부가 우발적으로 쏟아져 나왔고 사건 주동자를 찾기 위해 합수부는 셀 수 없이 많은 광부를 연행해 고문 조사했습니다.

우리는 사북항쟁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누가 절대적 권력을 용인하고, 감춰내고, 책임을 면피했을까요. 소멸된 기록, 사라진 광부, 막을 내린 탄광처럼 1980년 5월 사실의 조각은 상당수 흩어지고 지워졌습니다. 그러나 진실의 힘은 사금파리를 찾듯, 그날의 기억을 하나하나 모아내고자 합니다. 내년 1월 공개할 보고서에 앞서 이번 뉴스레터에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평생 잊고 싶었던" 그날의 기억을 꺼내주신 김해용 선생의 인터뷰를 싣습니다.

김해용 선생. ⓒ영화사 느티

| "책상에 앉으라 하고서는 종이를 한 장 꺼내 놓는 거야. 그러더니 '이 종이가 꺼멓나 희나' 묻더라고. 종이야 희죠 이러니까 '이 자식 이게 왜 희냐'고 하면서 주먹이 얼굴로 들어오는 거라. 거짓말로 쓰라는 뜻이었겠지. 하이튼 그렇게 맞고서 진술서를 쓰는데 눈물하고 콧물이 막 나와서 쓰지도 못했어요. 나는 맨 밑에 이름만 적었지."

"옆에서 죽는다고 막 고함 막 지르고, 아이고 아이고, 아야 아야 하고. 나도 같이 소리 지르는 판이니 거기 신경 쓸 수가 없지. 내가 조금이라도 덜 맞아야 되는데. 그런데 나는 아는 게 전혀 없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안 그래요? 본 것도 없지, 들은 것도 없지.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만 자꾸 캐묻지. 내가 모르는데 자기네들 묻는 말에 맞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니까 더 맞았죠. 나중에 들었는데 내가 하도 모른다고 하니까 다른 김해용이를 잡아 왔다 하더라고. 나는 영월 김해용인데 강릉 김해용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도 많이 당했다고 그러대." (전문 읽기)

[칼럼]
산업의 전환과 '느린 폭력'
: 1980년 사북항쟁은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는가
| 김세림 역사문제연구소

ⓒ조세희, peter arkell

| '느린 폭력'이라는 개념은 롭 닉슨이 주창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전혀 폭력으로 간주되지 않는, 오랜 시간에 걸쳐 벌어지는 폭력"을 의미한다. 이런 폭력은 비가시적이기 때문에 당장은 고통받지 않는다. 폭력의 구조에서 약한 고리에 있는 최약체에게만 서서히, 켜켜이 쌓여갈 뿐이다. 롭 닉슨이 지적하는 것처럼 '버림받는 가난한 공동체'들이 당하는 느린 폭력은 조용히 묻힌다. 폭력은 "피를 흘려야 주목받"기 때문이다. 1980년 사북항쟁은 이런 느린 폭력이 진행되는 사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주목받았던 사건이었다.

1980년 사북항쟁이 발발한 후, 전두환 정권은 빠른 수습과 정부 지원을 약속하고 실제로 목욕탕과 복지회관 등 가시적인 복지를 제공했다. 물론 그러한 가시적 복지 뒤에는 사북항쟁 참여자들에 대한 고문이라는 직접적 폭력 역시 존재했다. 그럼에도 사북항쟁이 발발한 후 전두환 정권이 '복지'를 약속하고 그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것에는, 티머시가 말한 것처럼 광부가 갖는 민주주의적 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석탄산업의 사양화와 독재 정권의 억압에도 광산지역이 개발되도록 압박했던 사북항쟁의 힘은 석유로의 전환이라는 '느린 폭력'에 대한 대항이었다고 봐도 무방하리라. (전문 읽기)

[칼럼]
쉬운 설명의 함정
: 복잡한 세상을 복잡하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
| 이한솔 후원회원 · 생명과학 박사

SIMPLE
COMPLEX

|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무조건 쉽게 설명해주세요."

무조건 알기 쉽게 설명해달라는 질문 앞에서 과학자들은 곤혹에 빠진다. 간단하게 말하자니 빠지는 내용이 많아 설명이 안 되고, 자세히 깊게 들어가자니 꺼내야 할 이야기가 너무 많다. 과학뿐 아니라 어떤 분야든 인류에게 쌓인 지식은 복잡다양하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선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런 점에서 개인방송채널이나 SNS 등을 통해 편리하게 접근 가능한 쉬운 설명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실로 축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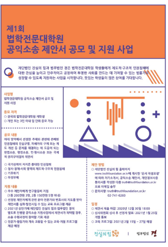
그러나 애석하게도 쉬운 컨텐츠는 포장지뿐 아니라 내용물까지 쉬운 경우들이 적지 않다. 쉽게 얻은 지식들은 얕은 깊이로 인해 스스로 이해했다는 만족감을 주는 역할만을 한다. 심지어 잘못된 방향으로 현혹하는 틀린 이야기를 그럴싸하게 담고 있는 위험한 콘텐츠도 분별 없이 섞여 있다. 우리가 진실을 찾고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쉬운 설명'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추구하고 좇아야 할 덕목일까 의심이 든다. 간단명료함으로 해체되기 전까지는 복잡다단함이 가지는 가치란 정녕 없는 것일까? 우리는 왜 이렇게 서로에게 쉬운 이해를 원하고 강요하는 걸까. (전문 읽기)

[칼럼]
딸바보 아빠에서 딸들의 남동생이 되다
| 김형숙 세월호 생존자 김동수님 아내

세월호 생존자 김동수
세월호를 잊지 말아 주세요
꼴통동수 달려
ⓒ제주의소리

| 동수 씨는 작은딸과 한라산을 다녀왔다. 요즘 운동도 안 하고 체력도 떨어져 한라산을 다녀오기에는 무리인 것 같은데, 대구에서 병원 근무하는 작은딸이 아빠랑 가을 한라산을 꼭 가야겠다고 하니 두말 말고 따라나섰다. 동수 씨의 이런 모습은 하나도 낯설지 않다. 딸들이 원한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결해주는 아빠, 그것이 아빠라는 존재가 된 후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보여준 동수 씨 모습이다. 본인이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아버지의 사랑도 받아보지 않아서 딸들에게 더욱 그러는 것 같다. 사랑을 받아 본 사람이 사랑을 준다는데 꼭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지금 동수 씨에게 그런 딸바보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는 딸들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남동생 같은 존재가 되었다. 아빠의 기분을 살피는 것도 딸들의 몫이다. 한때는 동수 씨는 너무도 심할 정도로 인터넷에서 물건을 마구 구입하거나, 마트에 가면 카트 안에 이것저것을 막 담기도 한다.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 나는 짜증이 나는데 딸들은 아빠에게 이것은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하게 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빠 몰래 살짝 빼놓는다. 언젠가 동수 씨가 너무 분노를 표출하는 등 감정적으로 힘들게 해서 아빠가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더니, 딸들은 아빠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아빠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한 말이 늘 가슴에 남는다. (전문 읽기)


제1회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소송 제안서 공모 및 지원 사업

재단법인 진실의 힘과 법무법인 경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제도적·구조적 인권침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법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뜻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사업명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소송 제안서 공모 및 지원 사업

응모 자격
○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 단위 응모 가능

공모 내용
아래 영역에서 선정한 주제와 관련해 은폐된 인권침해의 진실규명, 피해자의 구제 또는 제도 개선 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헌법소송, 행정소송, 민·형사소송 또는 국제적 권리구제절차 제안서

○ 국가권력이 저지른 중대한 인권침해
○ 정치·경제·사회 영역의 제도적·구조적 인권침해
○ 기후위기
○ 부정부패

지원 내용
○ 우수 제안자에게 연구활동비 지원 (1등 200만원 3명, 2등 150만원 5명 이내)
○ 선정된 제안자에게 관련 분야 전문가와 변호사의 지도를 받아 제안서를 심화·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
○ 2021년 상반기에 재단법인 진실의 힘과 법무법인 경이 별도로 진행할 공익소송 지원사업에서 제안서가 채택될 경우, 소송 수행과정에 참여할 기회 제공
○ 전문가·활동가와 계속 교류할 수 있는 교육·지원 프로그램 제공 예정

제안 방법
○ 재단법인 진실의 힘 홈페이지 www.truthfoundation.or.kr에 게시한 '문서 작성요령'에 따라 자기소개서, 공익소송 제안서, 개인정보사용 동의서를 작성한 다음 truth@truthfoundation.or.kr으로 이메일 송부
○ 문의사항: truth@truthfoundation.or.kr
02-741-6260

일정
○ 제안서 제출 마감: 2020년 12월 30일 18:00
○ 심사위원회 심사 후 선정자 발표: 2021년 1월 25일 개별 통보
○ 교육 프로그램: 2021년 2월 15일 ~ 27일 예정

진실의 힘 | 법무법인 경

[함께하는 사람들]
"진실의 힘의 '목적'을 지키되 정확한 설명과 투명한 공개가 가능해야 합니다"
| 오현석 감사

PAAI
공공경영
연구소
진실의 힘 감사 오현석 회계사. ⓒ진실의 힘

| 2020년부터 진실의 힘 감사로 임명된 오현석 공인회계사를 소개합니다. 올해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후원, 회계, 감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시민 사회 내부의 문제 의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진실의 힘은 올해 설립자 출연금, 후원금이 책임감 있게 제대로 쓰이고 잘 관리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현석 감사는 어떤 부분에서 '원칙'을 세우고, 또 어떤 부분에서 자율성을 유지해야 하는지 냉철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의기억연대 논란 당시에 문제가 된 공익법인 공시는 결과에 준해서 보고하는 시스템입니다. 사실 외부에서 알 수 있는 단체 관련 정보는 법에서 정한 공시뿐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회계보다도, 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리더십에 있습니다. 누군가 재정 관련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보여주면 됩니다. 비영리는 결코 사적 영역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위임 받았기 때문에 그 과정과 결과물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되고, 만약 불충분한 지점이 있다면 외부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설명해야 하는 것이죠." (전문 읽기)

함께하는 힘! +

[진실의 힘 강연 스케치] <국가폭력 피해자의 말에 공감하다>
'폭력의 기억을 말로 듣는 법'
강연자: 김명희 경상대 사회학과 교수

| 강연 스케치
폭력의 기억을 말로 듣는 법
임은지 심민지 자원활동가

당연한 것의 당연하지 않음

| 카드뉴스
당연한 것의 당연하지 않음
김동민 김세민 박채연 자원활동가

[후원회원 인터뷰]
"한 인간의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는 공간이라 좋아요"
| 박정진 후원회원

| 언어와 말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 아동들의 중재 및 재활을 하는 '언어 재활사' 박정진 후원회원을 만났습니다. 2020년 1월 후원회원이 된 그는 진실의 힘이 "한 인간의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는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손에 닿는 촉감과 온기로 아동들과 교감을 나누는 박정진 후원회원이 바라본 진실의 힘의 인간과 세계가 궁금해졌습니다.

"올봄 진실의 힘 사무실 이사를 도와주면서 조작간첩 피해자 선생님들의 사건에 대해 알게됐어요. 나와 가까운 이야기인 거예요. 마치 옆집 아저씨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요. 그분들이 받은 고문의 잔인성에 놀란 건 아니었어요. 제 현장에서 보고, 듣는 것도 많으니까요. 놀란 건 과정에서 모든 것이 완벽히 조작됐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것도 교묘한 조작이 아니라, 없던 건물이 있었던 것처럼 사실 자체를 완벽히 조작해서 한 사람의 세계를 무너뜨린 것이요. 어떤 권력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한 사람을 그냥 뭉개버렸다 싶었어요. 그런 사람과 진실의 힘이 만나, 한 인간의 무너진 세계를 재건한다고 생각해요." (전문 읽기)

공지
진실의 힘 홈페이지 개편 완료

- 공지사항 및 활동 소식을 메인 화면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 후원 시스템 변화로 편리한 신용카드 후원도 가능합니다.
  후원회원들의 소식을 한눈에 볼수 있는 게시판이 신설되었습니다.

진실의 힘 후원회원

① 2020년 9, 10월 후원회원
9월 226분, 10월 227분이 진실의 힘을 후원해주셨습니다.

② 새 후원회원 님, 반갑습니다!
김은미 님